

박 전 대통령 형사사건 한변지원 관련

1. 5. 1.자 동아일보 기사 등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이상철 변호사, 이동찬 변호사 등이 새로이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고 이들은 기존 변호인인 한변 공동대표 채명성 변호사의 추천으로 선임되었으며 특히, 이상철 변호사는 한변의 공익센터장, 이동찬 변호사는 사무차장으로 활동 중이고 상임고문인 이용우 대법관과 권성 전 헌법재판관도 측면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내용이었습니다.
2. 그러나 이상철 변호사와 이동찬 변호사가 새로이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은 채명성 변호사의 추천에 의한 개인적인 행위로서 한변 차원의 지원행위가 아니고 상임고문인 이용우 전 대법관과 권성 전 헌법재판관이 측면지원에 나서기로 한 사실도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3. 아울러 채명성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서의 임무에 전념하기 위해 한변 공동대표직 사임 의사를 밝혀와 한변에서는 그 의사를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년 5월 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